



천주이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무회장 : 백이백 아오싱 646. 599. 5795

제1독서 | 예제키엘 18,25-28

화답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된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필리피 말씀 2,1-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 마 태 오 21,28-32

- 성가 | 입당성가 [64]
- 예물준비 [216]
- 영 성 체 [496]
- 파견성가 [27]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생미사	봉헌
민재인 테레사	익명
김택영 알버트, 김혜숙 마리아가정	익명
손영소 스테파노, 손명희 엘리사벳 부부	익명
김은성 베드로	익명
김은성 베드로	김테레사 가족
김효주 수녀	김영희 클라라
이로잔 캐더린 건강	이안나
서하연 프란치스코	한안나
박연옥 엘리사벳, 김옥지 아가다	김승한 어거스틴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영명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요~

10.1 소화데레사 10.2 수호천사 10.4 프란치스코 10.5 파우스티나
10.6 브루노 10.7 묵주기도의 성모 10.9 디오니시오 10.11 요한
23세 10.14 갈리스토 10.15 대데레사 10.16 마르가리타 마리아알
라코크 10.17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10.18 루카 10.20 십자가의 성
바로 10.24 안토니오 마리아클라렛 10.28 시몬, 유다(타데오)사도

▶오늘 친교모임 없습니다.

본당행사로 오늘(10/1) 친교실 사용할수 없습니다.

▶한가위 후원 감사합니다.

한가위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마음 모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한가위 뉴튼 수도원행 버스티켓 반환

10/1(주일)부터 : \$15 (연령회)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 첫만남: 2023년 10/8(주일), 11시.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교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우분 한명이 예비신자 한 명을
인도한다는 지향으로 주변에 권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야 한다.”

신청: 사무실 347.834.5784

▶2024년 성지순례단 모집 "거룩한땅, 요르단, 이스라엘"

오늘(10/1)마감 날짜: 2024년 4월 15일~ 26일(11박 12일)
순례지: 모세구리벵 느보산, 와디럼광야체험, 사해, 베들레헴,
주님성탄성당, 유다광야, 꿈관공동체, 예리코유혹의산, 나자렛,
주님탄생예고성당, 갈릴레아, 베드로생가, 겐세마니, 거룩한
무덤대성당, 승천성당 등. 인솔: 신부님, 수녀님 경비: \$3,700
예약금: \$500 문의:박알버트 646-201-0175 선착순: 30명.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

꾸리아에서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십만송이 묵주기도
바치기(10만단)를 시작합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동참하시어
은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지오 단원과 협조 단원은 의
무입니다. 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월 로사리오 성월

미사전 꾸리아에서 묵주기도 1단 주관합니다.

▶청년미사 공지(2번째주 토요일)

청년미사 참석시 6:10pm 까지만 아래성당 문으로
입장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security가 퇴근하여
성당문이 잠겨 들어갈수 없습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청년들은 5:30pm까지 아랫성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교리 교사로 봉사하실 청년들을
기다립니다. 신청: 김가롤로 신부님

▶성경공부 (BIBLE ACADEMY 2학기) 예언서

주일반	오늘(10/1) 휴강	효주수녀
목요반	매주 목, 10am-11:20am	교육관, 3A

▶전례봉사자 2차 교육

전례봉사자 1차교육(내적 신앙교육)에 제대봉사자, 성가대, 성
찬봉사자, 말씀봉사자등 60여명이 참석하여 감사히 끝났습니다.
2차 교육 공지드립니다. 대상: 말씀봉사자(독서자, 해설자)
날짜: 10/29(주일) 오전 11시, 아래성당
내용: 전례봉사를 위한 실질적 교육. Sr.효주
*성찬봉사자를 위한 교육일은 별도 통보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어르신, 노약자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교리를 해드려,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비신자분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단기 출석교육’ 또는 ‘직접 방문하여 교리’ 가능합니다.

▶미국의 변화를 위한 로사리오 기도
 일시: 10/14(토) 낮12시(비 관계없음)
 장소: 록펠러 센터 앞, 5th 준비물: 묵주

▶풍물패 ‘신명’ 단원 모집
 머나먼 타지에서 우리의 문화를 지키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명나게 풍물하실분을 찾습니다.
 모임: 매월 둘째, 넷째 주일 2pm-4pm
 조건: 함께 신~명나게 풍물 하실분
 소속: 선교홍보분과, 연락처: 한안나 917-940-2977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B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Tel: 347-840-2112
 (32 St.- 33 St.) Fax: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부동산 (아오스덤)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New Wonjo
 212-695-5815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0/1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김애희 테클라	김애희 테클라	유정욱 유스티나	김승연마리아 양지수글라라
10/8	조소연 마르띠나	이태주 레오	장민우 레아	장민우 레아	민덕미 안젤라	김승현마리아 최예준사도요한

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4

리태원 시몬 신부



요즈음에는 어느 성당이든지, 아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그 시간에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성당에 안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 미사나 학생 미사에 참석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사 후에 교리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본당에서는 미사 후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곧바로 자녀들을 납치(?)해가시기 때문에, 교리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리 수업은 공부할 시간을 빼앗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공부하라는 잔소리의 반만이 라도 성당 가라는 잔소리를 하셨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 모습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법에 보면,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제774조 2항)”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가톨릭 신자 부모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더 맞게 마련할 수 있는 수단과 시설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에(제793조 1항)”, “가톨릭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제798조)”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스스로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자녀에게 교리 교육을 포함한 가톨릭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톨릭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자녀에게 가톨릭 교육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방법’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자녀들을 본당의 어린이 미사나 학생 미사에 참석하게 하고, 주일학교 교리 수업이나 학생회 활동에 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보낼 수는 없지 않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학업 문제 등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부모님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시면서도, 왜 유독 신앙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도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녀에게 주어진 선택의 권리’ 문제가 아닌, ‘부모에게 주어진 신앙 전수의 의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 의무를 지나치게 소홀히 하셨다면, 분명 하느님께서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